

생태문화이음길은?

생태문화이음길은 미추홀의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구분지어진 행정단위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 물, 길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내어 걸어보고, 보다 큰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물, 길은 필요에 의해 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 물, 길 등의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원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 구조를 직시하는 과정은 도시를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문화이음길 8개 코스를 안내자와 함께 걷다보면, 각 장소들이 어떤 지형 속에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간마다에 묻어있는 다양한 시간 속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아가 지역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더 많은 존재들 동, 식물, 공간 등이 함께 공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주 간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보는 것을 나누면서,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바다이음길1’

목적			
학익유수지(용현갯골)는 미추홀의 유일한 공유수면이자 바다로 향하는 갯골임. 낙섬에서부터 학익유수지를 따라 걸으며 바다로 향했던 미추홀과 인천의 과거를 생각하며 바다로 미래로 나아가는 미추홀과 인천의 미래를 생각함.			
코스			
원도사터 ▶ 백운유수지 ▶ 낙섬사거리 ▶ 청색해안표지석 ▶ 학익유수지(용현갯골) ▶ 남항근린공원 ▶ 삼각점			
필요물품	망원경, 장갑, 비닐봉투, 마대자루		
거리	5km	소요시간	2시간

1. 원도사터



낙섬이라고도 불리는 원도는 미추홀의 유일한 섬이었음. 과거 인천의 수령이 임금을 대신해서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원도사임. 원도는 병자호란 때 의병장 이윤생이 청나라와 격전을 벌인 곳이기도 함. 원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표기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관광객용으로 만든 ‘경승의 인천’에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

2. 백운유수지



아암대로로 나뉘기 전에는 학익유수지와 함께 갯벌이었던 곳임. 갯벌을 매립해 도시를 만들면서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유수지임.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다가 장마철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밀물 때가 겹치면 일시적으로 물의 가두어두는 역할을 함. 생태공간이기도 한 다른 유수지들과 달리 모든 구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음.

3. 낙섬사거리



낙섬사거리, 낙섬서로, 낙섬중로, 낙섬동로 등 도시개발로 사라진 낙섬(원도)의 흔적이 도로명이 일부 나타남. 낙섬은 원도사가 있던 원도와 소원도 두 개의 섬이었음. 낙섬의 위치는 용현한창2차아파트에서부터 GS고속주유소가 있는 곳이며 소원도는 갯골수로 건너편쯤으로 추정됨.

4. 청색해안표지석



한국전쟁 중 1950년 9월 15일 북성포구, 월미도, 낙섬 등 세곳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됨. 녹색해안 월미도에 상륙한 후 만조 때 적색해안, 청색해안으로 명명된 북성동과 낙섬에서 2단계 상륙작전이 진행됨. 당시 낙섬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약1km의 염전 제방이 있었음. 청색해안표지석은 용비도서관과 낙섬사거리 인근에 각각 세워져 있음.

5-1. 학익유수지(용현갯골)_학섬, 용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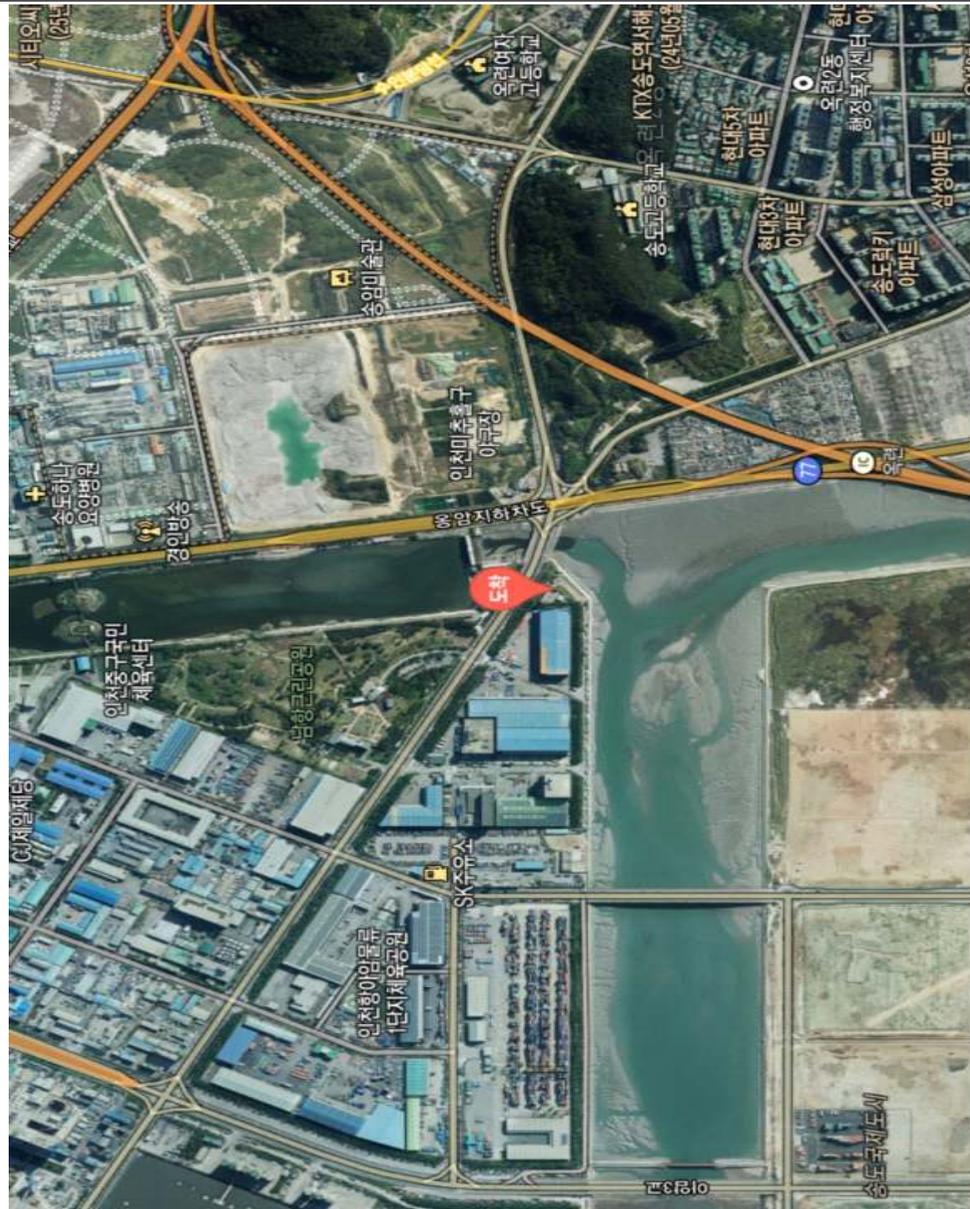
유수지를 조성할 때 두 개의 인공섬을 만들어놓음. 다리로 연결되고 유수지를 찾는 철새를 관찰하거나 물고기를 관찰하기 좋음. 아암대로에서 남향근린공원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학익유수지(용현갯골)가 학익동과 용현동에 걸쳐 있어 각각 ‘학’과 ‘용’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미추홀에서 사라진 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임.

6. 남향근린공원



학익유수지(용현갯골)와 인천환경공단 남향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위치한 공원으로 넓은 잔디밭과 함께 소나무와 버드나무 숲, 갈대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 주말과 휴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찾고 유수지와 함께 도심 속에 중요한 휴식공간 겸 생태공간이 되고 있음.

7. 삼각점



미추홀구 학익동 730-3. 현재의 미추홀 행정구역 중 평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으로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을 관찰할 수 있고 갯벌을 찾은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음. 인천 앞바다를 통해 황해로 또 세계로 나아 가는 관문인 골든하버(신국제여객터미널)을 볼 수 있음.